

한국인의 체면 문화 속에서 기독교인 자살유가족이 경험하는 수치심의 자기 심리학적 이해와 기독교 상담

우 영 미*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인의 체면 문화 속에서 기독교인 자살유가족이 경험하는 수치심을 Kohut의 자기 심리학을 통해 이해하고 기독교 상담관점으로 연구하였다. 유교문화권에 있는 한국은 서양의 개인주의와 달리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계주의 문화이다. 특히 한국인들은 체면 문화 속에서 사별의 아픔을 보이는 것을 떳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교회 공동체 또한 유교적 배경의 다양한 문화적 특징과 깊게 관련되어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에서 기독교인 자살유가족은 일반적인 자살유가족들이 겪는 애도 경험과 더불어 신앙인으로서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수치심과 죄책감의 고통을 겪는다. 본 연구에서는 자살유가족에 대한 이해를 정리하고, 한국의 체면 문화 속에서 자살유가족이 경험하는 수치심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Kohut의 자기 심리학을 확장한 객체적 자기인식 안에서의 한국인의 수치심을 토대로, 기독교인 자살유가족이 경험하는 수치심을 연구한 후 기독교 상담의 제안을 하였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교회공동체에서 기독교인 자살유가족들이 심리적, 사회적, 신앙적으로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기독교 전문 케어 프로그램의 마련과 기독교인 자살유가족의 애도 경험에 관한 기독교 상담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주제어: 자기 심리학, 기독교인 자살유가족, 수치심, 체면 문화, 기독교 상담

• 논문 투고일: 2019년 9월 29일

• 논문 수정일: 2019년 10월 26일

• 게재 확정일: 2019년 11월 1일

*충신상담센터 전문상담원

I. 여는 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년에 100만명 이상이 되는 사람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고 분석했다(Turecki & Brent, 2016). 특히, 우리나라도 해마다 자살자가 증가하여 2017년 한 해 동안 자살자는 12,463명이었다(통계청, 2018).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OECD 회원국 중에서 지속적으로 최상위권 자살률을 유지하고 있다(중앙자살예방센터, 2018). 자살자의 수가 급증함과 동시에 기독교인 자살자의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자살 관련 연구에서는 1명이 자살로 사망을 하면 자살자와 친밀하게 관계 맺고 있던 주변 사람 중에서 최소 6-10명의 자살유가족이 발생하게 되며, 이들 모두는 심리적 충격이 심각해진다고 보고한다(Crosby & Sacks, 2002). 자살유가족은 가족의 죽음 이후 정상적이고 문화적으로 수용되는 애도 과정을 갖지 못하고 공통적으로 ‘복합성 애도(Complicated Grief)’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김벼리, 2012; 이경미, 최연실, 2015; 장현아, 2009), 이것은 자살유가족의 정상적인 애도 과정을 방해하는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

기독교인 자살유가족은 여기에 더불어 신앙인으로서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평생토록 지울 수 없는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인해 이중(二重)의 고통을 경험한다(이명훈, 2014). 오늘날 교회 내에서도 기독교인 자살유가족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독교인 자살유가족의 애도 경험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하다. 장성수(1998)의 연구에 의하면 1998년 교회 내 자살유가족과 관련한 조사에서 감리교 교단소속 신학교인 협성신학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80명의 참여대상자 가운데 24명이 근래 1년간 교회 안에서 자살을 목격했다고 하였으며, 참여대상자 80명 중 30%는 교회에서 자살자와 자살유가족을 볼 수 있었다는 결과가 있었다.

2007년 실시된 20세 이상 전국기독교인의 자살에 대한 의식 조사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의 19.2%가 자살 충동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기독교인 5명 중 1명이 자살 충동의 경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정재영, 2008). 최근 몇 년간 기독교인 중 유명연예인들의 자살이 TV나 인터넷을 통해 보도되면서 유명연예인의 빈소에서 마주하는 십자가는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자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각인시키기에 충분하며, 이것은 기독교인 자살유가족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한국의 문화적인 배경에서 기독교인 자살유가족들이 겪게 되는 애도 경험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유교문화권에 있는 한국은 서양의 개인주의와 달리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는 관계주의 문화라고 할 수 있다. 문화는 의도적으로 가르치거나 노력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사회화 과정에서 흡수되고, 일생을 통해 우연히 배우게 되어 강화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는 인간이 숨 쉬는 공기와 같아서 평소에는 모르다가 그것을 빼앗겼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된다(황규명, 2005). 한국인의 문화 가운데 정서적인 면과 심리적인 면을 살펴볼 때 개인보다는 가족 그리고 공동체의 조화로운 통합을 가장 가치 있다고 보았으며, 체면과 효사상으로 공동체에서의 권위와 규율을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왔다. 이러한 문화적인 배경은 교회 내에서도 발견된다. 대표적으로 가족주의, 개교회주의 등은 교회 내에서 한국사회의 다양한 문화적 특성과 깊게 관련되어있다. 가족주의는 강한 유교적 전통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지연, 학연, 혈연의 강조와 함께 교회 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다(이지혜, 2012). 한국인 중 많은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행동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역할에 적절한 것인가 아닌가를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과 행동이 자신이 속해있는 공동체의 기준에 적절하지 않을 때 수치심을 경험하게 된다.

수치심은 자아와 타인의 관계가 기반이 되어 시작된 것으로 자기 안

에서 구축된 내부적 감정이다. 그러나 자기 안에 구축된 타자의 시각으로 자신을 보게 되므로 자기의 존재를 느끼는 것은 타인으로부터 가지 있게 여김을 받을 때 시작된다(한재희, 2005). 한국의 문화는 개인주의와 달리 관계를 중요시하는 집합주의적 특징을 가짐으로써 개인의 태도를 설명할 때에 개인의 규범보다 타인과의 역할기대와 연관되어 구축된다(강경미, 2005). 그러므로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수치심은 가까운 사이인 지인들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가깝게 관계를 맺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실패한 모습을 보게 될 때 더욱 수치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최상진, 김기범, 2000). 따라서 한국인들이 체면을 잃어버리는 것은 사회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며, 체면을 잃어버렸을 때 수치심으로 타인과 같이 사는 것이 쉽지 않게 되기도 한다. 특히 한국의 관계주의 문화에서 기독교인 자살유가족의 경우 교회 공동체의 가까운 관계에서 더욱 수치심과 연관된 모습이 나타난다(우영미, 2019; 이명훈, 2014).

오늘날 자살자의 수가 급증하면서 기독교인 자살자의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기독교인 자살유가족은 한국의 관계주의 유교문화권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가족의 자살을 막지 못했다는 스스로의 비난으로 수치심이 가중되는 고통을 경험한다. 수치심의 문제는 한국의 체면 문화권에서 개인의 정서에 깊게 뿌리내린 내면적 정서로(홍이화, 2011), 한국인에게 체면은 개인의 자존심과 명예, 수치심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다. 그러므로 수치심에 대한 이해는 상담의 접근에 유용한 토대가 될 수 있다(김준,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체면 문화 안에서 자살유가족이 경험하는 수치심을 Kohut의 자기 심리학을 확장한 연구를 통해 분석한 후, 기독교인 자살유가족이 경험하는 수치심을 기독교 상담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II. 펴는 글

1. 자살유가족의 애도 과정

1) 자살유가족에 대한 이해

자살유가족은 가족의 일원 중 누군가가 갑자기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린 경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자살자 가족들에 대해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살 유족’ 또는 ‘자살자 유가족’ (suicide family)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전요섭, 2018). 북미에서는 ‘자살생존자(suicide survivor)’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자살생존자는 ‘자살유가족’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자살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을 경험한 자살자의 가족, 친구, 및 지인까지 의미한다(American Association of Suicidology, 2004). 여기에서 ‘생존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자살로 잃는 심리적 고통으로부터 살아남았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Jackson, 2003). 자살유가족은 애도 과정에서 일반적인 사별자의 애도 과정과는 다르게 복합성 애도 과정(Complicated Grief)을 경험하는데 이것은 사별 초기에 나타나는 급성애도가 평생 지속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Zisook & Shear, 2009).

자살유가족에 관한 연구 중 주류를 이루고 있는 분야는 자살유가족들이 겪는 심리적 갈등에 관한 것으로, 대부분 자살유가족은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수치심, 죄책감,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 사회적 낙인, 비난, 분노 등 복합적으로 심리적인 갈등을 경험한다고 연구되었다(김벼리, 2012; 윤명숙 김가득, 2010; Callahan, 2000; Knieper, 1999). 자살유가족들은 자살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인식으로 인해 자신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못한다. 그들은 수치감, 슬픔, 분노, 무력감을 내면화하는 심리적 특징을 보이며 일반적인 사별자에 비해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충격과 죄책감, 그리고 자신을 버리고 떠난 자살자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로 고통받으며 살아간다(이명훈, 2014). 정신의학계의 보고에 의하면 자살유가족들은 일반적인 죽음을 애도할 때 경험하는 감정보다 몇 배의 고통을 느끼게 된다. 가족의 자살을 막지 못했다는 죄의식은 원활한 애도의 과정을 더 어렵게 만들며 이와 더불어 자살자 가족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수치심은 가족의 삶을 순간순간 마비시킨다. 자살을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못했다는 것,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충분히 돌보지 못했던 것, 자살하려는 생각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 등에 대해 스스로 비난하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변명조차 허락할 수 없는 수치심과 죄책감에 시달리게 된다(이경미, 최연실, 2015). 자살유가족들에게 끊임 없이 떠오르는 자살자의 자살을 택한 이유에 대한 질문과 생각은 죄책감과 후회, 수치감, 안타까움이 뒤섞인 것으로 이들에게는 그야말로 ‘고통’ 그 자체이다(Bois, 2010). 홍현숙(2007)의 연구에서는 자살유가족들의 사별 후 진료비 청구 건수가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보고한다. 전요섭(2018: 309)은 연구에서 자살자 유가족들이 경험하는 수치심을 ‘자기 낙인’ (self stigma), 그리고 ‘사회적 낙인’ (public stigma)으로 설명했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경험하는 수치심은 신앙과 연관되어 드러나는 것으로, 자살자 가족이 신앙인으로서 모범적이지 못하여 가족 중에 자살자가 나왔을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 낙인’ 이다. 우영미(2019: 337)의 연구에서 남편을 자살로 잃은 아내는 신앙인으로서 남편의 자살을 막지 못했다는 수치심으로 자책감이 강화되고, 스스로를 더욱 비난하며 교회 공동체 내에서 대인관계를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주희(2018: 230-231)의 연구는 기독교인 가족의 자살로 유가족은 더욱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수치스러움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했다. 이명훈(2014: 135-136)의 연구에서는 친구를 자살로 잃은 참여자가 기독교인 친구의 죽음으로 인해 친구의 가족이 수치심과 죄책감을 경험하며 한동안 신앙생활

을 하지 못하는 것을 목격하고, 유가족들이 자신들을 모르는 다른 곳으로 이사 하는 것을 본다. 이같이 기독교인 자살유가족들은 가족의 죽음으로 신앙과 연관되어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을 의식하면서 수치심을 경험하게 된다.

2) 복합성 애도(Complicated Grief)

자살유가족의 애도 과정에서 나타나는 복합성 애도는 가족의 죽음 이후 정상적이면서 문화적으로도 수용되는 슬픔을 애도하는 과정을 벗어나, 계속해서 심리적으로 혹은 신체적으로 부적응적 반응을 나타내는 비애 반응이다(장현아, 2009). Zisook과 Shear(2009)에 의하면 복합성 애도의 특성은 급성애도(acute grief)의 무기한 적인 지속 가능성이다. 급성애도는 사별 초기에 나타난 극심한 고통과 때로는 일상생활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특이하게 불쾌한 정서, 심한 슬픔, 울음, 집중력 장애, 자살자에 대한 기억과 생각의 집착, 그리고 자율신경 기능 장애 등이다. 유가족들은 죽음과 분노, 고인과 연관된 생각의 침범과 고통스러운 상실을 떠오르게 하는 외상적 고통을 경험한다. 또한, 자살자를 향한 강한 갈망과 더불어 반복되는 극심한 감정적 고통과 자살한 가족으로부터 분리의 어려움(separation distress)을 느낀다.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예고하지 못한 사별을 맞이하게 되면 애도 반응을 보이기 마련이지만 자살유가족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의 양상은 복잡적이라 할 수 있다.

자살유가족들은 예기치 못한 사별로 큰 슬픔이 정신적인 충격과 뒤엉키면서 아래와 같은 6가지 형태의 상실들을 겪게 된다. 첫째는 자살한 사람과 연관되는 물건이나 친숙한 환경 등에 관한 물리적 상실이다. 둘째는 긴밀한 상호작용을 하는 대상을 잃어버리는 관계의 상실이다. 셋째는 자신에 대한 이미지나 가능성 등에 대한 심리 내적인 상실이다. 넷째는 신체적인 기능의 저하 또는 무기력으로 인한 기능적 상실이다. 다섯

째는 상실로 인한 정체감의 혼란에서 오는 역할의 상실이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로 상호 교류의 과정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게 되는 체계적 상실이다(이명훈, 2014: 4 재인용).

2. 한국인의 체면 문화와 수치심

1) 한국인의 체면 문화

문화는 인간이 만들거나 빚어낸 환경의 한 부분으로(Herskovits, 1948), 복합적이면서도 다양한데 이것은 문화를 만드는 인간의 의식과 가치 기준의 다양성 때문이다. 또한, 문화는 삶의 방식으로 같은 문화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관습들과 제도적 요소들이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인간의 사회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유되고 학습된다(최재현, 2003). 유교문화권에 있는 한국은 서양의 개인주의와 달리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계주의 문화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인들에게 나타나는 대인관계의 특징은 관계를 중요시하며, 행위 자체보다 행위의 이면을 중시한다. 한국인의 사회적 관계에서 체면은 유교적 가치관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최상진, 김기범, 1998). 한국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은 그들의 행동과 생각이 그들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 알맞은 것인지 아닌지를 항상 생각하는데(Choi, Lee, 2002), 그들의 생각과 행동이 그들이 속한 공동체의 기준과 맞지 않을 때 수치심을 경험하게 된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로부터 격리를 가져오게 될 것에 대한 걱정, 두려움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대인관계 또는 공동체 안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체면에 관한 욕구가 나타내게 되며, 이로 인하여 개개인에게 민감성으로 작용하기도 한다(한준오, 2003). 체면 문화는 서양과 동양, 타 문화권 모두에서 발견될 수 있는 보편적인 문화 현상이다.

체면은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발달한 서양에서는 타인 의식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유교문화권에 있는 한국보다 덜 중요하게 여겨진다. 그러므로 체면이 자기개념과 대인 상호작용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사회 심리적 현상이라는 점에서 한국인의 체면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최상진, 유승엽, 1992).

(1) 체면의 개념

체면의 사전적 의미는 ‘남을 대하기에 떳떳한 도리’, ‘남을 대하기에 번듯한 면목, 낫, 남볼썽’ 이다(다음 한국어 사전). 그러므로 체면이 섰다는 것은 타인을 대하는 것이 더욱 떳떳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체면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타인을 대하는 것이 떳떳지 못하게 된 것을 뜻한다. 임태섭(1995)은 이러한 정의는 체면을 지켜야만 남을 당당하게 대할 수 있다는 한국인의 체면의식을 잘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최상진(2000)은 체면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자부심을 가지고자 하는 욕구라고 볼 수 있어서, 한국인에게 체면 문화가 발달 되었다는 것은 자기완성에 대한 욕구보다 남으로부터의 승인과 사회 성취 욕구가 강해서 발달 되었다고 해석했다.

(2) 체면의 특성

체면의 본질적인 특성을 네 가지로 살펴보면 사회적 속성, 이미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그리고 공적인 자기 이미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체면의 사회적인 속성은 타인과 함께 하는 사회적 상황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누군가와 함께 있지 않고 혼자 있을 때는 체면을 의식하지 않는다. 이러한 체면은 사회적 자존심(social esteem) 또는 사회적 얼굴(social face)로 불리기도 한다. 즉 체면은 타인에게 사회적 지위를 내세울 것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 있고, 대인관계에서 대우와 연관된 자존심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체면의 특성에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

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실체와 부합되지는 않는다. “사흘을 굶어도 남 앞에서는 이빨을 썩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인의 체면치레 행위는 실속보다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중요성을 두고 있다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다. 셋째, 체면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규정되는 가치로 구성된 이미지를 의미하므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게 규정되거나 자기 혼자만 바람직하다고 규정되면 체면을 세워주지 못한다. 따라서 체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지 그리고 존중할 만한지를 나타내주는 것이다. 체면을 지키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이미지를 지속시킬 수 있어서 타인을 대하는 것이 떳떳하고, 체면을 잃으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이미지를 잃게 됨으로써 타인을 대하는 것이 떳떳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체면은 공적인 자기 이미지이다. 공적인 자기 이미지는 남들이 받아들여 주기를 바라고 내세우는 자기의 모습을 말하며, “당신들이 알고 인정해주시기를 바라는 나 스스로의 모습은 이렇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체면이 공적인 자기 이미지라는 말은 체면이 남들에 의해 주지되고 수용되어야 할 자기 이미지라는 것을 의미한다(임태섭, 1995). 이러한 요소들을 볼 때, 체면은 신분 지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사회 그리고 타인 의식적인 사회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으로 그 사회에서 추구하는 사회적인 가치만큼 복잡한 구조를 가진다. 김용운(2002)은 한국인의 의식 구조적인 특성 중에서 체면이 한국문화의 유교적인 가치관과 밀접하게 연관되면서 서열과 위계질서를 강조하게 되었고, 또 거기에 알맞은 행동과 예절의식을 중시하는 문화에서 기인한다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같이 체면이 한국인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 삶의 전반에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인들이 삶에서 체면에 대한 강한 애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한국인은 체면 문화 속에서 관계 지향적으로 형성되어 왔으며, 행위 자체보다 행위의 이면을 중시하는 한국인

의 정서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수치심을 경험하게 된다고 해석된다.

2) 한국인의 체면 문화에서 경험하는 수치심

한국인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자신들의 행동이 도리에 맞지 않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요구되는 기준들로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의 관점으로 자신을 직시하는 부정적 평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관계주의 문화에 익숙한 한국인들의 경우 수치심은 친근하고 가까운 관계 속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실패했다는 생각에서 수치심을 느끼게 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한국의 ‘체면’ 문화에서 잘 나타나는데 한국인에게 체면을 잃는다는 것은 수치심 경험에서 중요한 요인이 됨을 시사한다(최상진, 김기범, 2000).

(1) 수치심의 개념

수치심의 개념적 정의는 우리말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마음’ (다음 한국어 사전)으로 어떤 일이나 행동에 있어서 떳떳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거나 당당하지 못할 때 느끼는 감정 그리고 솟기 또는 용기가 부족해서 거리감을 느끼는 상태를 뜻한다. 수치심은 ‘부끄러움’에 해당하는 한자어로 얼굴이나 귀가 붉어짐에서 유래한 문자이다. 수치심을 나타내는 ‘shame’의 영어의 의미는 ‘덮개를 덮다, 숨기다, 가려 두다’를 의미하는 독일어계의 ‘skem/skam’의 말에서 유래되었다(이호영, 2002).

(2) 한국인의 수치심

수치심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모두 느끼는 인간의 공통적 체험의 일부라고 한다. 그러나 상호 다른 문화, 인류학적 전통 가운데 살아온 동양인과 서양인은 서로 구별되는 수치심의 형태를 느끼면서 살아오고 있다.

서양인들은 법이나 원칙에 근거한 자아의식을 중시했던 배경에서 성장하여 ‘죄의식’을 강조해왔으나, 동양 사회에서는 한 개인의 실수가 가문이나 지역사회에 피해를 준다는 강한 연대의식이 강조되어 왔기 때문에 ‘죄의식’ 보다는 ‘수치심’을 중요하게 여겨 왔다고 볼 수 있다(한국 심리학회 학술위원회, 1997). 그러므로 동양권에서, 특별히 한국인의 수치심 현상을 이해하려면 한국인의 사회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 수치심에 대한 한국인의 사회문화적 요소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체면을 중시하는 사상이고, 다른 하나는 효를 중시하는 사상이다(이지혜, 2012 재인용). 한국인의 정서, 문화, 그리고 속담을 살펴볼 때 예로부터 체면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예로 ‘양반은 물에 빠져도 개해엄을 치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이 속담의 의미는 높은 품격의 사회적 신분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놓여도 자신의 품격 또는 자신의 신분을 해치게 하거나 낮추는 행동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현상은 외부적인 것에 비중을 두는 의식구조를 만들었고, 이로 인해 수치심의 문화가 형성된 것이다. 체면이 뜻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몸의 바깥 면이며, 타인이나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의해 체면이 높아지기도 하고 반대로 수치심을 경험하게 되기도 한다. 한국인의 문화에서 정서와 심리를 보면 개인보다 가족 그리고 공동체가 조화롭게 통합을 이루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겼으며, 체면과 효사상으로 공동체에서 규율과 권위를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왔다. 이러한 한국인의 체면의식의 배경과 효사상에서 한국인의 수치심이 강화되었다고 보여진다(이지혜, 2012 재인용).

한국인의 수치심은 사별 경험에서도 나타난다. 사별은 인간의 삶 속에서 누구나 겪게 되는 것으로 관계의 상실 가운데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오랫동안 내려온 체면 문화 속에서 죽음에 관하여 담담하기를 바라고 사별의 아픔을 나타내는 것을 떳떳지 못

하게 생각하는 모습들을 보인다. 특히 기독교인 자살유가족들은 한국의 문화적 배경 안에 있는 교회공동체에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드러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 신앙과 관련하여 수치심을 경험하게 된다.

(3) 기독교인 자살유가족이 경험하는 수치심

수치심을 만드는 요소는 사회에서도 볼 수 있으나 또한 교회 내에서도 나타난다. 교회는 한국사회의 다양한 문화적 특징과 깊게 관련이 되어 있다. 대표적인 예로 가족주의, 개교회주의 등이 있는데 이 특성들이 교회 안에서 수치심을 발생하게 한다. 가족주의의 배경은 강한 유교적 전통에서 시작되었으며 학연이나 지연 그리고 혈연의 강조와 더불어 교회 내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 또한, 효를 중요하게 여기는 가족주의에서 생성된 눈치와 체면은 기독교인의 영적인 성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은 인간을 궁극적인 존재로 여기는 유교의 휴머니즘이 교회 내에서 큰 비중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교는 인본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사상으로 신분주의인 기독교의 정신과는 정면으로 대치될 수밖에 없다(이지혜, 2012).

자살유가족은 가족 중에 자살자가 있다는 것에 심한 수치심을 갖게 되고, 사회와 타인으로부터 받게 될 비난과 낙인을 우려하게 된다. 이것은 자연적인 죽음 또는 사고로 인한 죽음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자살자 유가족들에게서만 심각하게 드러나는 심리적인 고통이다. 낙인은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자기 낙인’ 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낙인’ 이다. 자기 낙인은 자살자 유가족이 스스로 타인의 비난과 낙인을 인식하거나 상상하여 그것을 내면화하는 것이고, 사회적 낙인은 자살자 유가족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겪게 되는 것이다. 전요섭(2018: 309)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질적으로 다른 수치심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기독교인 자살유가족의 신앙과 관련하여 드러난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면, 장로님이신 아버지가 자살했다는 것에 대해서 “교인들이 뭐라고 생

각할 것인가, 즉 겉으로만 장로이지 속은 믿음이라고는 없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다는 것, 그리고 교인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는 생각”이다. 또한, 자식이 자살했다는 것에 사람들이 “집사 부모가 자식에게 스트레스를 얼마나 줬기에 아들이 자살했겠느냐 하는 것 같고, 집사 부모가 자식에게 제대로 신앙교육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한 가정의 엄마가 자살했다는 것에 대해 “저렇게 어린아이들을 두고 엄마가 어떻게 자살했는지 신앙인으로서 책임감도 없고 못된 엄마라는 생각” 들을 가족이 스스로 내면화하는 자기 낙인이다. 이명훈(2014)의 연구에서는 가족의 자살에도 자살유가족은 신앙인으로서 공적인 이미지를 중요시하고 장례식에서 슬퍼하거나 울지도 않고 조용하고 냉정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3. 한국인이 경험하는 수치심의 자기 심리학적 이해

수치심은 인간이 경험하는 보편적 감정으로, Kohut의 자기 심리학(selfpsychology)에서 중요하게 연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Kohut의 수치심 이론을 확장한 Broucek의 자기의식 개념과 확장을 통한 객체적 자기인식(objective self-awareness)안에서 한국인이 경험하는 수치심(홍이화, 2016)에 대해 고찰한다. 객체적 자기인식 안에서 수치심에 대한 이해는 한국의 ‘체면문화’ 가운데 자기 의식적인 감정이다. 이것은 한국인이 경험하는 수치심에 대해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인 토대가 된다.

1) Kohut의 수치심 이론에서의 자기의식(self-consciousness)

Kohut(1971)은 자기 의식적 감정으로서의 수치심을 자기 발달구조를 통해 설명한다. 자기에 대하여 Kohut은 인간 모두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자기의 정상적인 발달단계로 보았고, 일차적 자기에(primary narcissism)

의 두 가지 모양으로 과대적 자기(*grandiose self*)의 발달 그리고 이상화된 부모 원상(*idealized parent-imag*)의 발달로 설명했다. 과대적 자기는 거울 자기대상(*mirroring selfobject*)의 공감적 반응을 통해, 그리고 이상화된 부모의 원상은 이상화 자기대상(*idealized selfobject*)의 공감적 반응을 통해 최적의 발달조건에서 잘 발달 된다. 이러한 자기의 자기애적 발달은 이중축의 자기(*bipolar self*)구조로 발달 되는데, 즉 과대적 자기의 축이 정상적으로 잘 발달할 때 일차적 자기애의 형태인 과대적 자기는 건강한 포부(*ambition*)와 현실적 목표(*goal*), 그리고 자존감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으로의 성숙한 자기애로 변형된다. 또한, 자기의 이상화된 부모 원상의 축이 정상적으로 잘 발달할 때 이러한 일차적 자기애의 형태는 성숙한 자기애로 변형되어서 건강한 이상(*ideal*)을 가지게 되며, 스스로 달래주고 위로하는 능력과 자기애적 긴장을 조절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Kohut은 자기가 건강하고 견고한 구조를 가진 응집적(*cohesive*) 자기로 발달하려면 이 두 축이 골고루 잘 발달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Kohut, 1977).

수치심은 자기애적 자기의 구조 안에서, 특히 과대적 자기에 관한 지지와 인정이 결핍되었을 때 자기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된다. 과대적 자기의 과시적인 욕구를 지지하고 공감적으로 반영해 주는 자기대상의 기능이 최적의 반응이 되지 못했을 때, 그 기능을 필요로 하는 과대적 자기의 자기애는 해결되지 못하고 자기구조의 결핍 속에서 결과적으로 자기의 결함으로 남는 것이다. 즉, 이러한 자기애적 상처를 통해서 결국 수치심이 경험될 수 있는 것이다(Kohut, 1978). 유아의 건강하고 응집력 있는 자기가 발달 되는 데에는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Kohut, 2006). 만일 자기구조를 이루고 있는 한 축의 자기발달이 지장을 받아서 그 축의 자기가 성공적으로 발달 되지 않으면(수직적 분리-부정으로 인해 분리됨) 나머지 다른 한 축의 발달을 강화함으로써 먼저 손상되었던 축에서

의 자기의 약함과 결함을 보상하려는 시도가 일어난다. 이러한 보상의 시도가 성공되면 수치심은 강렬하게 경험되지 않는다. 하지만 보상의 시도가 실패(수평적 분리-억압으로 인해 분리됨)에 이르면 자기대상 전부를 실패한 경험을 한 것이므로 자기대상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남아 있는 상태로 깊은 수치심을 경험하게 된다.

Morrison(1989)은 Kohut의 발달 이론에서 말하고 있는 이중 축 자기 발달의 보상적 구조(compensatory structure)를 바탕으로 수치심 경험에서 이상화 자기발달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수치심은 이상화 자기발달의 실패와 연관이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 Morrison에 의하면 수치심은 자기발달 보상구조의 실패에 원인을 두어 이상화 자기대상의 실패로 나타나는 것으로, 수치심은 이상화 자기 결함에 관한 반응이다. 홍이화(2016)는 Morrison의 이상화 자기에 대한 주시는 Kohut의 수치심 이론의 형식을 이상화 자기와 연관 지어 확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Morrison이 연구한 Kohut의 수치심 이론에서 자기의식의 재개념화는 한국인의 수치심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포괄적이고 확대된 Kohut의 이론을 제안한다고 설명한다.

수치심 안에서 과대적 자기는 자기의 과시적 욕구가 지지받지 못하는 것을 거울 자기대상이 실패함으로 주체적으로 경험하고, 그 경험에서 자기감을 스스로 경험하게 된다. 자기대상의 공감적 조율 상태와 성격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자기대상을 경험하는 자기가 심리적 기능의 통합을 위해 필요한 자기대상의 기능을 자기 주체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Kohut에게 수치심 안에서 과대적 자기가 경험하는 자기감은 확실하게 주체적(subjective) 자기인식에 토대 되어 있다. Kohut이 확실히 시사하지 않았던 이상화 자기와 연관된 수치심은 자기와 어떠한 기준들 가운데 있는 일련의 관계를 수치심 경험 속에서 전제하는데, 이것은 실제 자기(actual self) 그리고 이상적 자기(ideal self) 사이에 어떠한 비

교가 포함된 것이다. 즉, 객체(object)로서의 자기 개념화를 드러낸 것으로, 자기를 주체로 그리고 객체로서도 인지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치심 안에서, 자기감은 또한 객체적(objective) 자기인식으로부터 경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한국인의 수치심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객체적 자기 인식적 감정으로서의 수치심이 중요한 개념적 틀이 됨을 시사한다(홍이화, 2016: 178-179).

2) Kohut의 수치심에서의 객체적 자기인식(objective self-awareness)

(1) 객체(object)로서의 자기

자기 의식적 감정으로서의 수치심은 주체(subject)로서의 자기와 객체로서의 자기의 역할도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치심은 이러한 관점에서 주체로서의 자기가 경험하는, 객체로서의 자기에 대한 경험이 된다. 수치심의 경험 안에서 자기는 자기 안에서 자기를 관찰하고 있는 내면화된 타자의 기준에 의해 못나고 보잘것없고 결함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평가하는 주체가 되며, 동시에 그 평가의 대상이 된다(Tangney & Miller, 1996), 여기서 객체로서의 자기개념은 자기가 되고 싶은 어떤 기준에 의한 자기평가를 함축하는 자기인식과 관련이 있게 된다. Hilgard의 거울 비유는 이발소에 있는 한 사람이 두 거울 사이에서 각각에 비추어진 자기를 보며 각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자기는 서로를 응시하고 있는 바로 그 자기를 바라보는 것으로 설명된다(Hilgard, 1949). 자기인식은 상대와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타인의 평가와 관련되므로 자기 인식적 감정으로서 수치심의 경험은 자기가 타인들의 의견과 평가의 시각으로 객체인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에서 나타난다고 이해할 수 있다(홍이화, 2016).

Lewis(1992)는 자기를 수치심의 주체와 객체로 보고, 수치심이 발생하는 과정에 사회적 요인을 의식하고 주체와 동시에 객체인 자신이 수치

심 가운데 인식되는 과정을 큰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 과정에서 수치심은 먼저 기준과 규칙 또는 목표와 연관된 자기의 실패에서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 평가에 의한 자기의 평가로부터 일어나며, 다음은 자기 자신과 연관된 자기의 실패에 의한 자기의 전체적 평가로부터 일어난다. Cooley(1902)의 거울 비유의 의미는 타인들은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 되므로 자기는 타인들을 통해서 비추어지는 것이다. 먼저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비추어진 모습을 그려보고, 그 후 타인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해석을 위해 타인들의 반응을 사용한다. 이렇게 해서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해석이 되게 된다. 홍이화(2016)는 수치심이 생기는 것에 자신의 부족함을 살펴보는 실제적인 관찰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도, 수치심 안에서 자신의 모습이 타인 또는 내면화된 타자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상상하게 될 수 있고, 실제로 타인들이 자신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기도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므로 자기 의식적 감정으로서의 수치심은 실제적이거나 가상적이거나 상관없이 타인의 눈을 의식하는 자기의 의식을 거쳐서 자신을 평가하는 자기 경험으로 이해될 수 있다.

(2) 객체적 자기인식

객체로서의 자기개념은 수치심과 연관되어 토의되어왔던 자기의식의 개념을 객체적 자기인식의 시각에서 확장한다. Lewis(1992)에 의하면 자기 의식적 감정으로서의 수치심은 자기성찰을 통해 비롯된다. 즉,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알 때 그리고 자신이 알고는 있으나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모르고 있을 때의 두 상황에서 자기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것이다. Lewis는 의식적인 전자의 상황을 ‘객체적 자기인식’으로 구분했다. 객체적 자기인식은 무엇을 지각하는 자기 자신, 무엇을 원하고 계획하는 자기 자신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한다.

Broucek(1991)은 수치심과 객체적 자기인식의 상관관계에서 객체적

자기인식이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이 관찰하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관찰하는 타자들의 반영으로 자기 자신을 객체화(objectifying)함으로써 성찰의 대상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객체적 자기인식은 일련의 발달단계에서 수치심 경험의 내용을 결정짓는 데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다. 초기 수치심 경험은 객체적 자기인식이 발달하기 이전의 단계에서 발생하며, 이러한 초기 단계의 수치심 경험은 자기에 대한 관념화와 아직은 관련되지 않는다. 객체적 자기인식은 초기연합의 단계를 지나 형성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의 경험은 초기의 즉각적인 것에서 객체화된 것으로 분리가 일어나며, 이것은 초기 연합상태의 해체 그리고 객체적 자기인식 상태로의 전환이다. 홍이화(2016)는 이러한 객체적 자기인식 단계에서는 자기가 감정적으로 연합되어 있다고 생각한 타인과 자기를 객체화시켜서 서로를 분리하게 된다고 정리한다. 즉 아이는 자기와 연합되어 감정적으로 자기가 지지받던 경험을 타인으로부터 분리하여 타인으로부터 자기를 객체화시키는 경험을 얻게 되며 이것이 객체적 자기인식 안에서 수치심을 일으키게 동기가 되는 것이다.

Broucek이 펼치는 객체적 자기인식 전, 후에 경험하는 수치심의 역동성 개념은 Kohut의 수치심 이론의 확장에 상당히 유용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같이 확장된 수치심의 개념화는 한국인의 수치심 경험의 이해에 상당히 중요한 이론적 틀을 제시한다. 한국인이 경험하는 수치심은 여러 부분 자기를 객체화하는 것, 그리고 한국문화가 소유하는 사회적 기준이나 이상, 또는 목표로 인해 과대적 자기나 이상화 자기를 구축하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이다(홍이화, 2016).

3) 객체적 자기인식 안에서의 한국인의 수치심

한국인들에게 자기됨이란 ‘자기’ 그 자체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구축되는 자기 주도성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자기됨은 자신을 둘러싸는 관계 내에서 객체적인 방법으로 인식되게 된다. 따라서 한국인들의 자기개념은 관계적이며 맥락적일 수 있고 상황에 의해 가변적으로 변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인들의 ‘우리-나’의 통합된 정체성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한국인들의 자기에 관한 정체성은 한국문화의 중요한 요소인 ‘우리성(wehoodness)을’ 함축하게 한다(최상진, 2000).

한국인들이 경험하게 되는 수치심에서 중요한 큰 특징은 객체적 자기 인식구조에서 대인관계에 의한 주체 그리고 객체로서 구축되는 자기의 모습과 연관된다. 그러므로 한국인들은 타인의 의견, 사회 가치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 또는 함께 공유된 목표들에 특별하게 반응하게 되고 그 경험들이 한국인의 수치심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즉, 한국인들이 경험하는 수치심은 사회적인 기준들과 그들의 이상에 따라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여길 것인지를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갖는 부정적 평가에서 비롯된다. 한국인들에게 수치심은 가까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실패가 수치심의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그로 인해 가까운 공동체의 관계에서 배척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치심 경험은 특히 한국의 ‘체면 문화’ 속에서 잘 드러나는데, 체면을 잃게 되면 수치심 경험을 갖게 된다(최상진, 김기범, 2000). 즉, 사람은 자기에 대한 믿음의 모습과 타인의 시각을 통해 보이는 객관적 현실 사이에서 나타나는 모순들을 자신의 수치심 안에서 경험하게 되며, 이것은 자신의 이상화 자기 또는 과대적 자기와 객체적 자기인식 사이에서 불일치를 느낄 때 경험하는 수치심으로 설명된다(Broucek, 1991). 그러므로 오랜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은 한국인들은 수치심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체면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이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

응해야 하는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인들이 타인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자기 스스로 느끼는 수치심의 경험들은 한국의 문화적 배경에서 자신들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자기 보호적인 방어적 노력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4. 기독교인 자살유가족이 경험하는 수치심과 기독교 상담

기독교 상담에서 성경적 인간 이해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 기초한다(창 1:26-27).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은 관계적인 존재로서의 인간과 죄인으로서의 인간이다. 이것은 인간은 동료 인간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상호의존적인 존재이지만 인간의 타고난 죄성으로 인해 완벽한 인간관계는 존재하지 못하고 상처와 아픔이 존재하게 됨을 의미한다(김준, 2013). Lane과 Tripp(2008)은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존재로, 수평적인 인간관계를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지적하고 관계성을 강조한다.

기독교인 자살유가족에게 나타나는 수치심은 신앙과 관련하여 드러난다. 즉 자살자 가족이 신앙인으로서 모범적이지 못하여 가족 중에 자살자가 나왔을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 낙인’이다. 이것은 문화와 신앙공동체의 잘못된 성경해석에 근거한 건강하지 못한 신학 자체가 자기대상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문화는 인간이 숨 쉬는 공기와 같다. 그러므로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하다가 그것을 빼앗겼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며 이런 점에서 자기대상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Kohut은 자기대상을 심리적 산소라고 비유하기도 했는데(최영민, 2011), 자기 자신과 구분되지 않으면서 마치 자기 자신처럼 구분된다는 점이 문화와 자기대상의 공통점이

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문화는 자기대상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유교문화권에 있는 한국에서는 교회 또한 다양한 문화적 특징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 한국인의 체면 문화 배경에서 기독교 자살유가족들은 스스로에 관한 믿음과 기대 그리고 타인의 시각에 의한 객관적인 현실 사이에서 나타나는 모순을 수치심 안에서 경험한다. 관계적이고도 맥락적인 문화 배경에 익숙한 기독교인 자살유가족들은 신앙과 관련하여 자신들이 신앙인으로서 모범적이지 못하여 가족 중에 자살자가 나왔을 것이라고 스스로 낙인찍는다. 이것은 객체적 자기인식 안에서 타인의 시선에 관한 두려움으로 설명될 수 있다. 체면은 자신의 도덕성과 능력을 완성하고자 하는 욕구와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사회적인 성취 욕구로 인해 발달한다(황규명, 2005).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체면의식에서 특징적으로 두드러지는 가면과 허식은 필요하지 않다. 타인이 자신의 참모습을 보면 비난과 조롱을 할까 두려워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며 인간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용서와 격려를 하시는 분이다. 인간의 삶을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세세히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해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과도한 체면의식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일은 중요하다.

한국의 오랜 유교 문화의 체면의식 이면을 보면 인간의 타락한 죄성과 관련이 있다(황규명, 2008). 체면 문화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수치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특징은 객체적 자기인식구조 안에서 대인관계를 통한 주체와 객체로서 형성되는 자기의 모습과 연관되는 것이다(최상진, 김기범, 2000). 이것은 스스로에게 지나친 관심을 두는 것으로 인간은 자신의 방식대로 되지 않으면 낙담한다. 또한, 타인이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 의해 울고 웃는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적인 전제들이 인간

의 시각을 멀게 한다. 성경은 인간의 문화가 제시하는 치료법, 즉 ‘자기 사랑’ (self-love)을 증진 시키는 것은 실제로 마음의 병을 더 심화시키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다(Welch, 1994). 그러므로 기독교 상담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든 문화적 배경 안에서 자신이 가진 왜곡된 시각을 발견하고,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시각을 갖도록 도와야 한다. 인간이 고난과 축복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지 인간의 마음을 통해 지배받기 때문이다.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으나, 수치심은 자신을 부끄럽게 느끼도록 하여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존엄성에 위협을 가져다 준다. 한국인들이 경험하는 수치심은 사회적인 기준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여길 것인지를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게 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온전한 모습의 하나는 수치심이 없는 상태이다(창 2:25).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이후 겪게 된 최초의 감정 중의 하나가 수치심이다(창 3:10). 수치심의 근본은 하나님과의 단절과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죄인으로서의 모습이다. 하나님은 수치심을 느끼는 그들에게 옷을 만들어 입히시며 그들의 수치심을 덮어주셨다. 성경에서는 수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결지어 설명한다. 처녀에게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부끄러운 탄생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수치심에 젖은 사람들과 같이한 삶이었고, 수치스러운 고난의 길이었으며, 수치스럽게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삶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수치와 죄를 담당하고 죽음으로써 인간의 수치심이 씻겨지게 하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소중한 명예를 얻도록 한다 (Welch, 2012).

사랑하는 가족을 자살로 잃은 기독교인 자살유가족은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지워지지 않는 슬픔이 내재 될 수 있을 것이다(계 21:4).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깊숙한 내면에 자리 잡은 수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도록 도우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낮은 자, 고통받는 자, 소외된 자들을 먼저 찾아와 만나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소망을 주셨다. 기독교 상담은 모든 사람을 인내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며, 고통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돕고(Welch, 1994), 수치심으로 고통받는 자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중감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III. 닫는 글

본 연구는 Kohut의 자기 심리학을 통해 한국인의 체면 문화 속에서 기독교인 자살유가족이 경험하는 수치심을 분석하고 기독교 상담을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OECD 회원국 중에서 지속적으로 최상위권 자살률을 유지하고 있는데, 자살자의 수가 급증하면서 이에 따라 기독교인 자살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자살 관련 연구(Crosby & Sacks, 2002)에 의하면 1명이 자살로 사망을 하면, 자살자와 친밀하게 관계 맺고 있던 주변 사람 중에서 최소 6-10명의 자살유가족이 발생하게 되며, 이들 모두는 심리적 충격이 심각해진다. 유교문화권에 있는 한국은 서양의 개인주의와 달리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관계주의 문화로서 체면을 유지하는 것이 자기 존중감의 중요한 영역으로 인식되어왔다. 이런 문화의 영향으로 자살유가족이 느끼는 수치심은 더욱 가중되고 건강한 애도 과정에 어려움을 겪으며 상실의 고통이 더해질 수 있다. 교회공동체 또한 유교적 배경의 다양한 문화적인 특성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문

화적 배경에서 기독교인 자살유가족은 신앙인으로서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평생토록 지울 수 없는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이중의 고통을 겪는다.

본 연구는 기독교인 자살유가족이 한국의 유교 문화 안에서 경험하는 수치심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먼저 자살유가족의 애도 과정에 대한 이해를 정리하고, 한국의 체면 문화 속에서 경험하는 수치심을 분석한 후 Kohut의 자기 심리학을 확장한 연구를 통해 객체적 자기인식 안에서의 한국인의 수치심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기독교인 자살유가족의 수치심을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적 관점에서 도울 수 있는 기독교 상담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하는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인의 문화적 영향 아래 있는 교회공동체에서 기독교인 자살유가족들이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독교 내에서 전문적인 케어 프로그램의 마련과 둘째, 기독교인 자살유가족의 애도 과정에 관한 기독교 상담관점의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다.

【 참고문헌 】

- 강경미 (2005). 기독교 상담과 한국인의 대인관계 문화. **복음과 상담**, 5, 179-205.
- 김벼리 (2012). 남편을 자살로 잃은 중년 기독교인 여성의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전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운 (2002). 초등학교 교사들의 체면 지향 행동에 관한 조사연구. 창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 준 (2013). Heinz Kohut의 인간 이해와 기독교 상담. **복음과 상담**, 20, 9-35.
- 우영미 (2019). 자살유가족의 애도 과정에 관한 단일사례연구 : 기독교 상담적 접근. **신학과 실천**, 66, 323-350.
- 윤명숙, 김가득 (2010). 자살자 자녀를 둔 농촌 지역 어머니의 경험. **한국가족 복지학**, 29, 115-148.
- 이경미, 최연실 (2015). 자살자 유가족의 애도 과정 경험에 관한 연구. **가족과 가족치료** 23(4), 655-686.
- 이명훈 (2014). 기독교인 자살생존자의 애도 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갈등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지혜 (2012). 수치심에 대한 목회 상담학연구 : 하인즈 코헷의 자기심리학을 중심으로. 한신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호영 (2002). **부끄러움**. 서울: 청년 의사.
- 임태섭 (1995). **정, 체면, 연출 그리고 한국인의 인간관계**. 서울: 한나래.
- 전요섭 (2018). 자살자 유가족의 심리이해와 영적 지지를 위한 목회 상담 방안. **신학과 실천**, 58, 297-327.
- 장성수 (1998). 자살유가족들에 대한 교회의 돌봄. 강남대학교신학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장현아 (2009). 복합 비애(Complicated Grief)의 개념과 진단. **한국심리학회지** 28(2), 303-317.
- 정재영 (2008). 자살에 대한 개신교인의 인식과 교회의 책임. **신학과 실천**, 16, 11-33.
- 중앙자살예방센터 연구평가원 (2018). **KSPC Research Brief**. 서울: 중앙자살 예방센터.
- 최상진 (2000). **한국인의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 최상진, 김기범 (1998). 체면의 심리구조. *한국심리학회지*, **14**, 559-577.
- 최상진, 김기범 (2000). 체면의 심리적 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 185-202.
- 최상진, 유승엽 (1992). 한국인의 체면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분석. *사회심리학회지: 사회* **6**(2), 137-157.
- 최영민 (2011). *자기 심리학*. 서울: 학지사.
- 최재현 (2003). 문화의 다양성과 문화 충격 : 타 문화권 선교를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14**, 133-161.
- 최주희(2018). 기독교인 자살유가족의 사별 경험. *한국 기독교상담학회지*, **29**, 213-258.
- 한국 심리학회 학술위원회 (1997). *심리학에서의 비교문화 연구*. 서울: 성원사.
- 한재희 (2005) 유교 문화와 기독교 상담의 문화적 접근. *복음과 상담*, **5**, 206-232.
- 한준오 (2003). 한국인의 체면 민감성과 신분-가문의식이 과시 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규명 (2005). 체면 문화와 기독교 상담. *복음과 상담*, **5**, 7-28.
- 황규명 (2008). *성경적 상담의 원리와 방법*. 서울: 바이블스터디.
- 홍이화 (2011). *하인즈 코헛의 자기심리학 이야기 I*.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 홍이화 (2016). 한국인의 수치심 이해를 위한 하인즈 코헛 이론의 재고찰. *신학과 실천*, **48**, 171-194
- 홍현숙 (2007). 가족의 자살사망이 유가족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Bois, A. (2010). *남겨진 사람들*(정기현 역, *Et le jour pour eux sera comme la nuit*). 서울: 다른 세상. (원전 2009 출판).
- Broucek F. J. (1991). *Shame and the Self*,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Callahan, J. (2000). Predictors and correlates of bereavement in suicide support group participant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0**, 104-124.
- Choi, S. C., & Lee, S. J. (2002). Two-Component Model of Chemy on Oriented Behaviors in Korea. *Journal of Cross Psychology* **33**(3), 332-345.
- Cooley, C. H. (1902). *Human Nature and the Social Order*.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 Crosby, A. J., & Sacks, eds. (2002). Exposure to Suicide: Incidence and Association with Suicidal Ideation and Behavior, US 1994.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2, 321-328.
- Herskovits, J. M. (1948). *Man and His Works*. New York: Knopf.
- Hilgard, E. R. (1949). Human Motives and the Concept of the Self. *American Psychologist* 4(9), 374-382.
- Jackson, J. (2003). *A Handbook for Survivors of Suicide*. Washington DC: American Association of Suicidology.
- Knieper, A. (1999). The survivor's grief and recovery. *Suicide and Life threatening Behavior* 29, 353-364.
- Kohut H. (1971). *The Analysis of the Self*. Madison: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Kohut H. (1977). *The Restoration of the Self*. Madison: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Heinz Kohut. (1978). *Thought on Narcissism and Narcissistic Rage* (1972), in *The Search for the Self* 2, ed. P. Ornstein. Madison: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Kohut, H. (2006). 자기의 회복(이재훈 역, *Restoration of the self*).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원전 1977 출판).
- Lane, T., Tripp, P. (2008). 관계가 주는 기쁨(이명숙 역, *Relationships: A Mess Worth Making*). 서울: 미션월드. (원전 2006 출판).
- Lewis, M. (1992). *Shame: the exposed self*. New York: The Free Press.
- Morrison, A. P. (1986). *Shame, Ideal Self, and Narcissism*. In *Essential Papers on Narcissism*, ed.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Tangney, J. P., & Miller, R. S. (1996). Are Shame, Guilt, and Embarrassment Distinct Emo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6), 1256-1269.
- Welch, T. E. (1994). Exalting Pain? Ignoring Pain?. What do we do with Suffering? *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 12(3). 4-19.
- Welch, T. E. (2012). 큰 사람 작은 하나님(김찬규, 이하은 역, *When People are Big and God is Small*). 서울: 개혁주의 신학사. (원전 1997 출판).
- Zisook, S., Shear, K. (2009). Grief and Bereavement: What Psychiatrists Need to Know. *World Psychiatry* 8, 67-74.

다음 한국어 사전, 수치심, 2019. 09. 15 접속. dic.daum.net/index.do?dic=kor
통계청 (2018). 2017 사망원인통계, 2019. 07. 23 접속.
<https://mdis.kostat.go.kr/index.do>.

【 Abstract 】

Christian Suicide Family in Korean Chemyun Culture
Self-Psychological Understanding of Shame and
Christian Counseling

Woo, Young Mi

Chongshin Counseling Center Counselor

This study analyzes the shame experienced by the Christian suicide family during mourning process in Korean chemyun culture through Kohut's self-psychology and the Christian counseling point of view. Different from Western individualism, Confucianism, which is widely spread in Korean culture, emphasizes importance of collectivism, focusing on relationships. Typical Koreans want to be calm when facing death and are ashamed to reveal the bereavement pain because of chemyun. The Korean church community is also deeply connected with the relationship culture. Thus, the Christian suicide family suffers from the mourning process experienced by ordinary bereaves, along with the indescribable disgrace and guilt of life that they have not kept their families as believers. This research compiles thoughts of the understanding of the suicide family and examines the shame experienced by the suicide family in Chemyun culture. Additionally, the shame of the Christian suicide family was considered as Christian counseling point of views based on the embarrassment of Koreans in objective self-awareness through the extended research on Kohut's self-psychology. The key messages are needs of follow-up studies on Christian community's counseling perspectives on the mourning experience of the Christian suicide family and the preparation of professional care program within the Christian community to restore the psychological, social and religious health of the Christian suicide family in the church community under the cultural influence.

Key words: self psychology, Christian suicide families, shame, Chemyun culture, Christian counseling